

저축 어록

저축은 '애인'이다
아끼면 아낄수록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SBI 저축은행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2016 Summer Vol. 10

SBI Story

신용대출 브랜드 '바빌론' 신규 TV CF 론칭
NPL부 탐방

SBI Life

명동지점 신동주 과장 가족의 딸기농장 나들이
요즘 뜨는 '샤로수길' 대탐험
여름철 원기회복 보양식 BEST 3



SBI 저축은행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Summer 2016 Vol. 10



표지모델
SBI저축은행 분당지점 윤지은 사원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341호(2016.7.5)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여성환 대리 Tel. 02-3416-6288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SBI Story

- 04 SBI 포커스
신용대출 브랜드 '바빌론' 신규 TV CF 론칭
- 08 SBI 희망뉴스
2016년 2분기 주요 소식
- 12 SBI 새 얼굴
오토금융부 이동을 대리 외 11명
- 16 부서 탐방
NPL부
- 20 직장생활 솔루션
출퇴근 시간 깨알 활용법

SBI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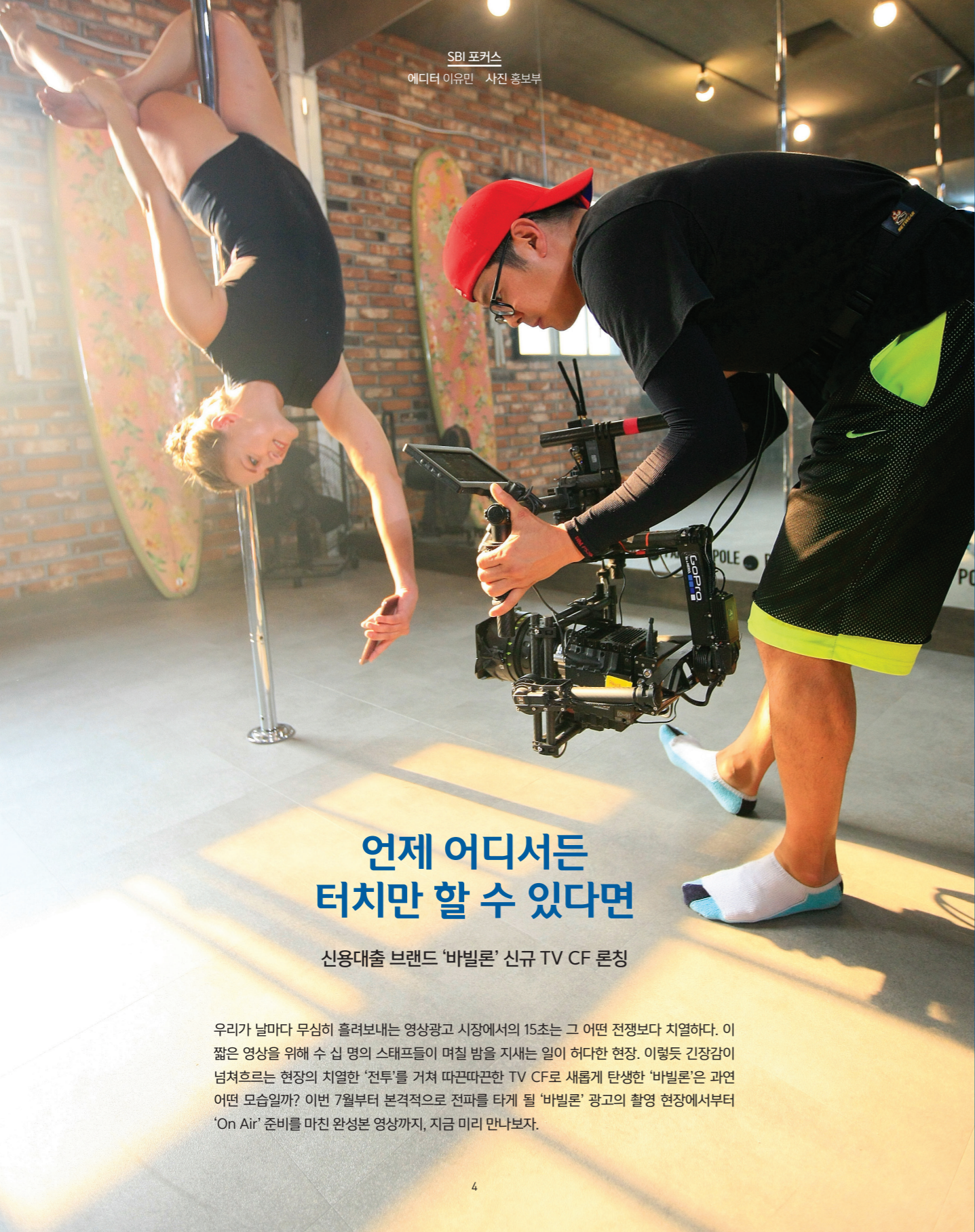
- 24 달콤한 나의 가족
달콤하고 향긋한 딸기 같은 행복
: 명동지점 신동주 과장 가족의 딸기농장 나들이
- 30 추천! 핫 플레이스
요즘 뜨는 '샤로수길' 대탐험
- 32 계절 밥상
여름철 원기회복 보양식 BEST 3



SBI Story



모든 시작은 그 결말이 불확실합니다.
오직 시작하지 않은 것의 결말만이 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터치만 할 수 있다면

신용대출 브랜드 '바빌론' 신규 TV CF 론칭

우리가 날마다 무심히 흘러보내는 영상광고 시장에서의 15초는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다. 이 짧은 영상을 위해 수 십 명의 스태프들이 며칠 밤을 지새는 일이 허다한 현장. 이렇듯 긴장감이 넘쳐흐르는 현장의 치열한 '전투'를 거쳐 따끈따끈한 TV CF로 새롭게 탄생한 '바빌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게 될 '바빌론' 광고의 촬영 현장에서부터 'On Air' 준비를 마친 완성본 영상까지, 지금 미리 만나보자.



'바빌론'의 본질적 특징점을 메인 콘셉트로

흔히 '15초의 미학'이라고 일컫는 광고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기업의 상품을 알리고 브랜드에 힘을 더하는 이 짧은 제작물을 위해 광고인들은 수없는 낮과 밤을 고민해 상품에 대한 특징점과 기업의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만 한다.

이번 '바빌론' TV CF의 콘셉트 또한 이러한 광고의 기본 원칙에서 출발했다. 2013년 9월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브랜드로 탄생한 '바빌론'은 '바빌'과 '론(Loan)'의 합성어로 '바로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지닌 브랜드 네임. 인터넷 클릭만으로 쉽고 빠르게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바빌론'은 SBI저축은행이 자체 개발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의 개인신용 평가모델에 근거해 대출 심사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 승인된 고객에게는 직접 또는 2차 심사를 통해 송금해 주는 인터넷 전용 대출 상품이다. 웹과 모바일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은행에 직접 올 필요가 없다. '바빌론'의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점, 즉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대출한다'는 조희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TV CF의 메인 콘셉트가 되었다.



'바빌론' 신규 TV CF 촬영일지			
날짜	시간	내용	장소
6월 16일(목)	08:00	암벽등반	화성 시티팜
	10:00	스카이 다이빙	
	13:00	액션영화 폭파 장면	
6월 17일(금)	06:00	파쿠르 (드림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익스트림 스포츠)	경희대 평화의전당
	08:00	오케스트라 공연	
	13:00	산악 MTB	하남 검단산
	17:00	폴댄스	성수동 폴댄스 스튜디오

바빌론 신규 TV CF '콘티에서 영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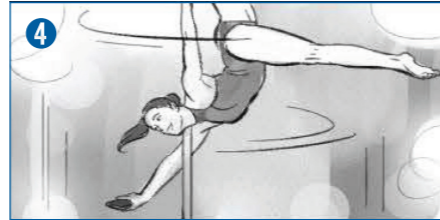
히말라야: 극한의 상황에서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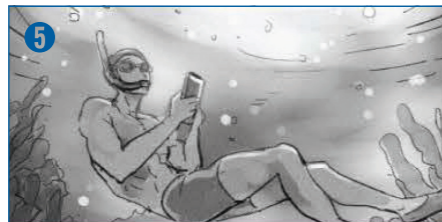
암벽등반: 절벽에서 터치



오케스트라 공연중: 자신의 파트가 끝나자 막간을 이용해 터치



폴댄스: 붐에 매달린 채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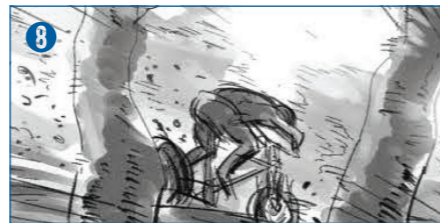
스노쿨링을 하면서도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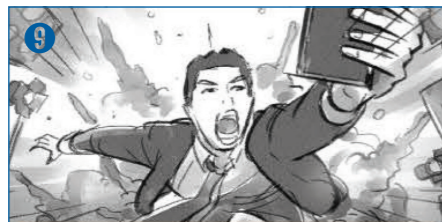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터치



파쿠르: 공중에서 탄하여 터치



산악MTB: 전속력으로 달려며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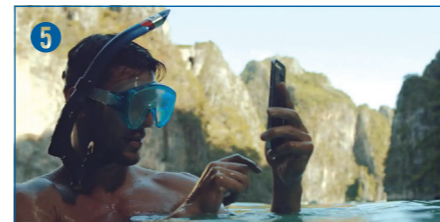
영화촬영 현장: 폭파 장면을 찍으며 터치



바빌론 모바일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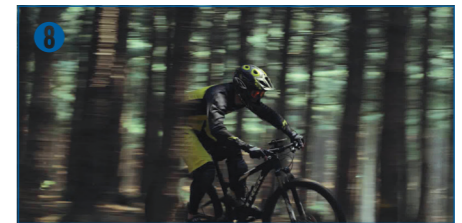
NA) 언제 어디서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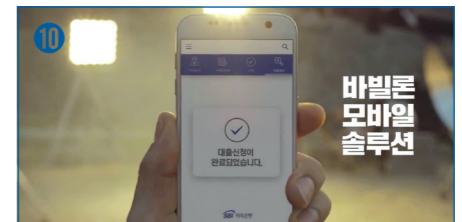
NA) 터치만 할 수 있다면



NA) 한도조회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NA) 대출이 필요할 때



NA/자막) 바빌론 모바일 솔루션



SBI저축은행, 선린인터넷고등학교와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 맺어

SBI저축은행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와 1사 1교 금융교육을 위한 결연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인 금융교육 활동에 나섰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결연행사를 시작으로 인터넷·IT 특성화 학교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금융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졸업생 중 인터넷·IT 관련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SBI저축은행에 입사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선린인터넷고 권병욱 교장은 “SBI저축은행과의 결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금융과 취업에 관한 체계

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결연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은행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이사는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SBI금융그룹은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의 온라인화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며, 선린인터넷고등학교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IT 특성화 학교로서 SBI의 1사1교 대상으로서는 최적의 학교”라 말하고, “이번 결연은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인 핀테크와 관련된 미래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린인터넷고와 함께 국내 1사 1교 결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직원 전원 대상 Compliance 교육 실시

SBI저축은행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ompliance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부서장, 지점장을 대상으로 하는 Compliance Leader 과정과 부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Compliance Professional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Compliance Leader 과정'은 교육과정을 리스크관리, 조직관리, 법규, 사례 연구, 액션플랜 등 총 6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1박 2일 동안 22시간의 야간교육을 포함해 총 2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강도 높게 실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을 초빙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더욱 생생한 교육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준법강화 교육을 전사로 확대한 Compliance Professional 과정은 모든 부서원을 대상으로 을지로 센터 원 본사 교육장에서 5~7월간 총 14차례 걸친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준법강화 교육은 글로벌 SBI 금융그룹의 체계적인 준법 시스템과 까다로운 수료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준법경영은 기업의 질적 성장을 좌우하는 만큼, 앞으로도 준법경영의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업계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경영전략회의 열고
'안정·소통·투명' 경영에 박차**

SBI저축은행이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임진구 대표이사, 정진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국 임원,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SBI저축은행은 국내 1등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선포하고, 개인 및 기업금융 등 부문별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경영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 서민들을 위한 중저금리 사업 확대, ▲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 시중은행과의 연계영업 활성화, ▲ 경영개선 활동을 통한 재무안정성 확보, ▲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말 총자산 4조 5천억 원 달성, 1분기 당기순이익 실현 등 올해 초의 재무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2016년의 주요 재무적 목표인 '견고한 흑자 기초 유지'와 '고정이하여신비율 지속 축소' 등을 달성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총동원하여 이번 회계연도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로 결의했습니다.



**종로지점·마포지점
고객감사 예·적금 특판 실시**

SBI저축은행은 5월 16일(월)부터 3개월간 종로지점, 마포지점에서 예·적금 특판 상품을 판매합니다.

정기예금 특판 상품의 금리는 12개월 기준으로 2.2%~2.4%, 한도는 각 지점별 500억 원이며, 정기적금 특판 상품의 금리는 12개월 기준으로 2.9%~3.1%, 한도는 각 지점별 50억 원입니다. 이는 2016년 5월 13일 기준 저축은행 예·적금 평균 금리보다 각각 0.27%~0.47%(정기예금), 0.19%~0.39%(정기적금) 높은 수준입니다.

SBI저축은행 담당자는 "마포지점과 종로지점은 서울지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에 상업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업무시설 등이 위치해 지점 개설 후 지역 주민, 소상공인, 직장인 등 많은 고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판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I 임직원 대화의 장,
'호프(HOF)데이' 실시**

SBI저축은행은 6월1일 임직원과 조직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대화와 친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호프데이를 진행했습니다. 호프데이는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직되어 운영 중인 '소통 이끄미'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프데이는 주임 & 사원, 과장 & 대리, 부장 & 차장 직급별로 나누어 총 3곳의 장소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으로, 가까운 직급으로 짝을 이루어 별도의 공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해 '자유롭고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업무 연관성이 없어 교류 기회가 없던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생각과 애환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기회였습니다. 호프데이에 참석한 임진구 대표이사는 "회사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직원 여러분이며, 직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아마도 건강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며 참석한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희망나눔 자선경매 릴레이' 실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 온 SBI저축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2016년 여름에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경매릴레이 행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희망나눔 자선경매 릴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주마다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기증자가 다음 기증자 1명을 지정해 경매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매 릴레이는 임진구 대표이사의 기증을 시작으로 여러 임직원들의 기증과 경매 참여를 통한 모금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경매 릴레이 행사는 201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경매를 통해 모금된 모든 금액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싱싱 불어라! 신바람 에너지

2016년 여름을 앞두고 SBI저축은행에 새로운 식구 열두 명이 더 생겼다. 자칫 무더위에 지치고 늘어지기 쉬운 계절, 이 새로운 식구들의 상큼한 에너지를 통해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한 기운을 느껴보시길!



<공통 질문>

- ① 나에게 SBI저축은행은?
- ②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이유는?
- ③ 이번 여름 나만의 휴가 계획은?

이수지점 안진영 사원

- 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곳
- ② 이수지점 강현정 사원!
사수님답게 제가 모르는 업무를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며 지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줍니다.
- ③ 가족끼리 여행을 간 지 오래되어 이번 여름에는 꼭 가족들과 휴양지를 가고 싶습니다.

오토금융부 이동울 대리

- ①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 ② 오토금융부 유재준 부장님!
이유가 필요 없이 누구나 보면 이해하실 듯합니다!
- ③ 가족들과 일정을 맞춰 중국 장가계, 황산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당지점 남호선 사원

- ① 내 삶의 일부분을 너에게
- ② CSS부 박소연 대리님!
분당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박소연 대리님!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주는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에요. 나라도 비슷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 ③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름보다 가을에 다녀올 생각이예요.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동남아 또는 싱가포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지점 강미영 사원

- ① 시작과 경험 그리고 성장
- ② 올림픽지점 식구들 모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지점 식구들이 모두 좋아요!
- ③ 친구들과 가까운 휴양지로 해외여행 갈 계획입니다.

소호영업부 유현규 사원

- ① 금의환향
- ② 소호영업부 부서원 모두!
이전 회사가 개인 위주의 업무성향이 강했다면 SBI 소호영업부는 매우, 무척, 많이,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친구들과 무인도에서 2박 3일 뉴시캠프, 혼자 떠나는 도쿄 여행

목동지점 조혜림 주임

- ①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준 곳
- ② 목동지점 직원들!
새로운 곳에서 어색하지 않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대해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많은 것을 챙겨주십니다.
- ③ 네 자매가 모두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아직은 계획 단계이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서 자매의 우애를 다지고 올 예정입니다.



일산지점 조윤아 주임

- ❶ 집보다 사랑 & 정든 집
- ❷ 노원지점 윤주인 지점장님!
입사 후 인천지점에서 윤주인 지점장님과 함께 일할 때 '이런 지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도 나중에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지점장님처럼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❸ 일한다는 핑계로 많이 못 놀아준 딸에게 이번 휴가 동안 최고의 엄마가 되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오토금융부 박진석 대리

- ❶ 내 청춘과 함께 갈 회사
- ❷ 오토금융부 이규영 주임님!
업무에 막힘이 없고, 주변인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 ❸ 제주도에 혼자 가서 마음껏 힐링하고 돌아오려 합니다.

노원지점 송현희 사원

- ❶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
- ❷ 노원지점 윤주인 지점장님!
다른 분들도 다들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특히 지점장님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밝고 편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 ❸ 고등학교 친구들과랑 세부 여행 가려고 합니다. 다들 직장을 다닌 뒤로는 어디 한번 모여서 가는 게 쉽지 않는데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노원지점 한유경 주임

- ❶ 나의 꿈과 열정이 있는 곳
- ❷ 노원지점 윤주인 지점장님!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심어주셔서 지점 분위기가 화목합니다.
- ❸ 가족과 함께 대마도 여행!

CSS부 차현군 사원

- ❶ 귀국할 수 있게 해준 은인
- ❷ CSS부 박소연 대리님!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사내 다른 직원 분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 ❸ 지인들 그리고 신세를 진 SBI 분들도 별검 일본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목동지점 이우주 사원

- ❶ 새로운 출발! 도전과 미래!
- ❷ 입사동기들!
SBI저축은행에서 처음 만나고 새로운 출발의 설렘과 긴장을 공유한 우리 동기들이 좋습니다!
- ❸ 아직 구체적인 여름휴가 계획은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번 여름휴가만큼은 제가 지원군이 될 작정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다

NPL부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다른 저축은행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NPL 시장에 SBI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려 했던 NPL 부서원들의 의지 덕분이었다.

채권 관리의 스페셜리스트가 모이다

일반 고객들에게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조금은 낯선 용어다. 우리말로는 무수익여신, 미회수채권 또는 부실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에서 원리금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인하여 판매하게 된다. 더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같은 무수익여신을 저렴하게 사들여 영업수익을 내는 부서가 바로 NPL부다.

이미 제1은행권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이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적 절차와 검토단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는 NPL 시장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SBI저축은행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 올 초에는 대표직속 NPL TFT까지 만들어질 만큼 NPL을 통한 수익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 SBI저축은행 NPL부의 인원은 총 12명으로, 16년 경력의 채권관리 베테랑인 신중하 부장

이 지난해 12월 부서장을 맡게 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백화점으로 비유하면 자금운영 계획 상 이월재고로 남기기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부실채권의 매매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담보력이 약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물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적당히 값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이죠.”

수익성이 낮다고 평가된 물건일지라도, 어딘가에 이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분명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신중하 부장의 지론이다. 어찌 보면 경제 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하고 자금중개 기능과 결제 기능, 신용창조 기능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NPL부서는 현재 무담보부 부실채권관리 파트와 담보부 부실채권관리 파트로 나뉘어 있다. 무담보부 부실채권관리 파트는



왼쪽부터 권혁준 대리, 정교 전문역, 임영규 주임, 김형섭 대리, 김호중 차장, 손소라 사원, 신중하 부장, 이장환 차장, 김철기 사원, 이승환 전문역, 김득중 전문역, 강찬구 전문역



당행 및 외부 금융기관 채권 약 16만 계좌 신용채권의 시효관리, 추심, 민원처리, 신용정보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담보부 부실채권관리 파트는 외부 금융기관 매입 채권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진행, 담보 물건 회계평가, 시장가치 조사,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 채권매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영업의 끝,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2014년 NPL 인수시장에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 SBI그룹의 유상증자에 따라 여유자금 운영 및 조기 자산증대를 목적으로 큰 폭의 NPL채권 인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체 인수시장에서 무려 3위 규모였다. 해상과도 같은 등장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매입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입가격 상승과 마진 폭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난해에는 미상환원금잔액 3조 3천억 규모의 무담보 NPL 채권 매각 입찰 절차 도중 낙찰자로부터 민사소송(당행 1차 승소) 및 민원제기를 받아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 수익을 내기까지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매입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 채권매각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점은 큰 수확이었죠.”

NPL부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비전과 운영목표를 재정립하고 채권 매입 및 매각시기, 방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NPL 투자수익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NPL채권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직할 편제가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대표 직속 TFT가 신설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된 것.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통한 무수익 자산의 조기회수와 선제적 자산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통해 NPL채권의 회수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창구가 영업의 최전선이라면, 저희가 하는 일은 영업

의 끝이죠. 가장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일하는 셈이죠. 그만큼의 사명감과 의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지난해 매입한 채권을 매입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희열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열두 명의 부서원들은 매일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 현장을 확인하고 채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법률을 검토한다. 철저한 자료 준비로 유치권부존 재확인소송, 배당이의소송, 근저당권효력범위 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최대의 성과를 위해 서로가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100%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필수다. 그러기 위해 늘 돈독한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NPL부. 오늘도 ‘영업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Mini Interview NPL부 신중하 부장



“은행 영업 이익의 든든한 한 축이 될 것”

Q NPL부의 특징이나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모든 부서원이 NPL 업무와 경험에 있어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두 번째는 부서원 사이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특히 업무 경험이 많으신 전문역 분들께서 실무적인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젊은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늘 화기애애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넘기면서 다져온 부서원들 간의 의리는 차돌처럼 단단하지요.

Q 평소 NPL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으시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NPL 업무를 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더 많고 생소한 분야라 업무에 관련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NPL 업무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라는 신념으로 어께가 무겁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지요?

NPL 인수시장에 다시 도전하여, 은행 영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해서 은행 수익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깨알 활용법



오늘도 어김없이 출퇴근길에 나서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직장인들. 반복되는 일상에서 출퇴근 길은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기 쉽다.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과 버스 안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사람들과 스마트폰에 얼굴을 박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만의 자유시간인 출퇴근 시간을 넉넉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계획 짜고 아이디어 궁리까지, 일상을 관찰하라

출퇴근길에는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어쩌면 당신의 꿈과 미래가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출퇴근길의 풍경은 꽤 재미있다.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 스마트폰에 열중한 사람, 꾸벅꾸벅 조는 사람……. 이들의 모습을 세밀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출퇴근길에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 등 일과를 정리하면서 메모하는 것도 유용하다. 계획을 짜고 일과를 정리한 다음 회사에 도착하면 업무에 곧바로 집중하게 되며, 일에 대한 열정과 마음가짐도 새로워진다. 자신의 꿈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출퇴근 시간을 '황금알을 낳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자.



집중 잘 되는 출근 시간, 자기계발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은 하루 2~3시간을 길에서 소비하는 직장인. 무심코 흘러 보내기에는 무척 아까운 시간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처럼 출퇴근 시간만 잘 활용해도 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알차게 꾸려가는 시간은 그 자체로 설레고 즐겁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좌석에 앉았다면 주저 없이 책을 펼쳐라.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 집중이 잘 된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항상 책을 들어,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공부에 열중해라. 어학 공부나 자격증 취득,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등 무엇이든 좋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출퇴근길의 자투리 시간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자.

정신을 살찌우는 시간, 흥미진진한 '소설의 바다'에 풍덩!

독서는 혼자 조용히 있는 공간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더 잘 읽힌다. 평소에는 잘 읽히지 않는 책이 이상하게 이동 중에 보면 집중이 잘 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으면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독서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단, 이때는 흥미롭고 즐겨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을 선택하면 좋다. 본인 취향의 소설 한 권을 골라 이동 중에 독파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나가자.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지루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책을 덮기 싫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을 '쓸모 있는 시간'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또한 무심코 지나치기 아깝다. 그저 멍하니 서서 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이 짧은 시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기다리면서 까치발을 들거나,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 또한 목과 상체를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 보자. 오고가며 보이는 동영상 광고나 게시물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트렌드를 읽는 것도 좋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차게 쪼개 쓰는 사람이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출퇴근 시간을 '황금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SBI Life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합니다.
아마추어는 관광객이 되고, 프로는 여행가가 됩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딸기 같은 행복]

명동지점 신동주 과장 가족의 딸기농장 나들이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남양주의 한 딸기농장.
탐스럽게 열린 딸기를 보자 아이들의 손놀림도 덩달아 빨라졌다.
딸기향이 그윽한 초여름 딸기밭에서 귀여운 세 딸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낸 신동주 과장 가족의 주말 나들이.



딸기 마니아 가족의 농장 나들이

신동주 과장의 세 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딸기. 달콤한 맛도 일품이거니와 한입에 먹기도 좋아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 주스나 슬러시, 딸기잼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 신동주 과장 가족이 주말을 맞아 딸기농장을 방문한 것도 평소 딸기를 좋아하는 세 딸들에게 실컷 딸기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결혼 10년차인 신동주 과장과 박아영 부부 사이에는 올해 갓 학교에 입학한 첫째 딸 서원이(8세), 각기 다른 매력의 이란성 쌍둥이인 서인아와 서아(5세)가 있다.

“평소에 아이들 모두 딸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딸기 값이 비싸기도 하고 입이 많다 보니 마음껏 먹이질 못했는데, 오늘 딸기도 직접 따보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커요.”

딸기밭에 도착하자마자 주렁주렁 달린 딸기를 보고 탄성을 내지르는 아이들. 농장주 김연진 대표의 안내를 듣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곧잘 딸기를 따기 시작했다. 엄마가 씻어놓은 딸기를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수확을 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신선한 느낌일 터. 가족들이 딸기 따기에 열중하는 사이 딸기밭이 펼쳐진 비닐하우스 안은 금세 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 찼다.



딸기와 함께 즐기는 달콤한 시간



전북 전주에서 금융계에 종사하던 신동주 과장은 지난해 SBI저축은행 명동지점에 입사하면서 가족 모두와 함께 삶의 터전을 옮겼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빠르게 적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신 과장 부부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

“사실 서인아가 태어날 때 좀 아팠어요. 대학병원에서 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먹는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했지요. 다행히 이제는 깨끗이 나아서 셋 중 가장 먹성이 좋은 아이로 컸네요. 오늘도 딸기를 다 먹어치울 기세인데요.”

아이들이 따온 딸기를 씻어주자 웅기총기 모여 앉아서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농장에서 따로 준비한 열린 딸기에 요구르트를 조금 넣고 믹서에 갈자 금세 걸쭉한 딸기 슬러시가 완성되었다. 시원한 딸기 슬러시 한 잔에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도 점차 말라갔다. 한풀 더위가 꺾이자 이번에는 딸기 찹쌀떡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미리 준비한 찹쌀 반죽에 단팥 앙금과 금방 따온 딸기 한 알을 넣어 둥그렇게 마무리하니 먹음직스러운 딸기 찹쌀떡이 완성되었다.



는, 아니 아버지는 저에게 그곳에 남고 자주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송촌리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섯농 농사꾼입니다. 딸 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가꿉니다. 아가 심은 소나무에서 솔잎을 따 솔잎효 담그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낚신 땅에서 지은 딸기와 감자로 케이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요소로 시원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딸기꽃 향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다르게, 그리고 예쁘게 커가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남은 체험은 딸기잼 만들기. 냄비에 딸기와 설탕을 넣고 은근한 불에 졸이면 되는데 타지 않게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다.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휘젓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의외로 서아가 열심히다.

“쌍둥이지만 서인아와 서아는 성격이 180도 달라요. 서인아는 새로운 것이 호기심이 많고 금세 싫증을 내지만 서아는 매우 신중한 성격에 집중력이 대단하죠.”

신 과장의 말대로 한 곳에 진득하게 앉아 딸기잼 만들기에 열중하는 서아와 달리, 서인아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탐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다른 성격과 특징을 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신 과장 부부는 감사하고 기특하다.

“낮선 도시에서 외벌이로 아이 셋을 키우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기에 직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어요.”

딸기농장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동주 과장의 양손에는 아이들이 직접 따고 직접 만든 생딸기와 딸기잼, 딸기 찹쌀떡이 가득 들려 있었다. 이제 곧 딸기처럼 달콤한 추억이 이들 가족 앨범의 한권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것이다.



Tip



새콤달콤, 말랑말랑한 딸기 찹쌀떡 만들기

팥의 달콤함과 찹쌀떡의 쫄득함, 거기에 상콤한 딸기가 어우러지는 ‘딸기 찹쌀떡’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 간식이다. 딸기를 더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아이들과 함께 딸기 찹쌀떡 만들기에 도전해 보자.

How to

재료: 딸기, 팥앙금, 찹쌀반죽, 옥수수전분



① 적당한량의 찹쌀반죽을 덜어 옥수수전분 가루를 묻혀가며 동그랗게 빚는다.



② 팥앙금도 적당한량씩 떼어 동그랗게 빚어준다.



③ 딸기 한 개를 팥앙금으로 감싼다.



④ 반죽이 손에 묻지 않도록 전분가루를 묻혀가며 납작한 원으로 만든 뒤 팥앙금으로 감싼 딸기를 넣고 감싼 후 동그랗게 마무리하면 끝!

서울대입구역에서 샤샤샤!

서울대입구역 요즘 뜨는 '샤로수길' 대탐험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관악로14길 젊은 장사꾼들의 특색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선 이곳은 골목길아 요즘 '핫'하다. 서울대학교 로고와 비슷한 '샤'에 가로수길을 더한 '샤로수길'로 일컬어지는 이곳에 가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2만 원 안팎의 싼값에 즐기며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덩으로 느낄 수 있다.



1 <봉천예술관> 오리엔탈 요리와 예술의 만남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22
T 02-877-2046



5 <반까이양55> 태국 방콕의 노점상 콘셉트 음식점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82
T 02-875-0155



2 <남만씨름> 휴양지의 허름한 비치바 콘셉트. 20여종의 스타일리시한 수제 맥주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30
T 02-876-1141



6 <스윗벨런스> 재철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한끼 식사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99 1층
T 02-883-3225



3 <몽중인> 홍콩영화 분위기의 술집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13
T 010-7167-6659



7 <인민스 버거> 최고급 와규를 이용한 정통 수제버거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2길 109
T 070-8692-9020



4 <샤> 다이닝 펍
A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27
T 02-882-5227



8 <제주상회> 제주식 고지국수와 등베고기
A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22-14
T 02-886-5595

여름철 원기회복

보양식 BEST 3



여름 보양식의 제왕, 삼계탕

‘여름철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계탕. 지난달 한 포털사이트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름 보양식 메뉴’를 묻는 질문에 자그마치 83%의 응답자가 삼계탕을 꼽았다. 복날이 가까워 오면 전문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도 삼계탕을 취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선호할까?

삼계탕은 봄철 등우리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400~500그램쯤 되는 중달이 되었을 때 잡아 인삼, 황기, 대추, 찹쌀 등과 함께 푹 고아서 만든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인 닭고기와 만병통치약의 영약인 인삼이 만났으니 영양은 물론이요 맛 또한 환상적이다.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해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류는 자신의 소설에서 삼계탕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고,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는 삼계탕을 ‘진생 치킨 수프’라고 일컬으며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찾는다고 한다.



스태미나의 보고, 장어

연신 팔딱팔딱 힘이 넘치게 뛰어대는 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A 함량이 높다. 소고기보다 200배 높은 함량의 비타민A는 활성산소 제거, 눈 피로 개선 및 시력 향상, 야맹증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아울러 비타민 E, 레티놀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부 미용 및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철 성분도 많아 빈혈과 골다공증을 막아주며, 철분과 칼슘성분이 많아 성장기 자녀들의 발육에도 효과적인 식재료다. 이 밖에도 필수 지방산인 DHA, EPA, 칼슘, 단백질 등이 풍부해 두뇌 발달과 성장 발육에도 좋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먹기에 좋은 음식이다. 맛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자칫 여름 보양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장어는 고단백 식품임에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성인병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름철 보양식으로 더더욱 제격이다. 여성의 경우 장어의 섭취가 난소작용을 활발하게 해 주름방지와 피부탄력에 도움을 주며, 자양강장에 도움이 되는 뮤신 역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남성 스태미나 식품으로 단연 첫손에 꼽힌다.



패류의 황제, 전복

삼계탕, 장어와 함께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전복. '바다의 보물' '패류의 황제' '바다의 산삼' 같은 별명이 암시하듯, 불과 10~20여 년 전만 해도 전복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고급 음식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전복은 미역, 다시마, 감태, 대황 등의 해조류를 먹고 사는 고급 패류로 맛이 달고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나 예부터 다른 조개들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진미로 여겼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명장 관우가 눈 치료에, 진시황제는 불로불사의 묘약으로 전복을 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옛날 금이나 은이 부족하면 전복으로 대금 결제를 대신했다는 기록도 있다.

전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적도지방에서도 생산되지만 한국산이 으뜸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양식 전복의 80% 이상은 전남 완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다. 완도 연안 바다는 게르마늄 천연 암반층으로 이뤄져 있어 다양한 수산물의 보고로 이름이 높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선으로 섬과 섬 사이 조류 소통이 원활해 전복의 천연 먹이인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로도 평가받는다.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8월 5일(금)까지 홍보부 여성환 대리(ysh@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